

'무주민속예술진흥회' 발족

창립총회 갖고 무형유산 분야 사업 추진 첫 발 디딤

잡채된 무주의 민속놀이와 무형유산을 개발 지속시킬 '무주민속예술진흥회'가 태동했다. 이 단체는 지난 13일 무주군 적상면 치복마을 (삼배)마을 공동작업장에서 '무주민속예술진흥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문화유산 분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발을 디딤다. 이날 선출된 서흥원 회장(안성두문리나화놀이보존회 총무)은 "시대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점차 사라져가는 무주의 민속예술의 보존 가치를 정립해 무주가 갖고 있는 정신을 되새기고 발굴과 전승,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립총회에 앞서 송화섭 전 중앙대학교수, 최무연 국립전주박물관회 이사장, 보존회 임원, 무주군 관계자 등 15명이 모여 창립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잡채된 무주의 민속놀이와 무형유산을 개발 지속시킬 '무주민속예술진흥회'가 태동했다.

구성된 보존회는 6개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유산 보유단체인 '부남디딜방아맥이놀이보존회', '안성두문리나화놀이보존회'를 비롯해 '치목삼배영농조합법인(삼배짜기)', '부남면민속놀이보존회(백소배놀이)', '산의 솟대제보존회', '무풍기질놀이보존회'로 구성됐다.

창립총회는 진흥회 구성을 위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심의 안전으로는 설립을 위한 정관 제정, 임원 선출, 재산 출연 등이 의결됐다. 이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무주민속예술 진흥회가 가장 먼저 창립이 추진됐으며, 관 주도나 아닌 민간단체들의 주도로 사라져가는 농촌 공동체문화 전승과 진흥에 노력하고 무주군의 전통 민속예술을 전승해 온 단체들이 모여 조직하게 됐다.

생업방식의 변화로 생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예로부터 농업을 기반으로 형성됐던 공동체 문화가 붕괴되면서 사라져가는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 및 복원의 필요성을 공감함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에서 전통 민속예술 단체들로 조직된 진흥회 창립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향후 '전라북도 민속예술진흥회 연합회'가 구성돼 예로부터 호남평야가 입지한 농도(農道)인 전라북도에서 사라져가는 농촌 공동체 문화를 이르는 전통 민속예술 보존과 발굴을 위한 학술연구, 무형 문화유산 전승단체 육성·부흥을 위한 정책연구 및 민속놀이 경연 개최 등을 통해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성 기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소장 작품 부산 순회전

24일까지 부산시청 2층 전시실서 개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오는 24일까지 소장 작품 부산 순회전을 '부산시청 제3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03년 이후 20년 만에 개최되는 부산 순회전에는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지역의 서예가 작품 25점과 11개국의 해외서예가 작품 23점, 그리고 한·중 서예가 1,000명이 참여한 '천인천각천자문' 대형 병풍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서예의 본질인 '필선'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한문, 한글, 문인화 작품들로 구성됐다. 특히 거친 듯 역동적이면서도 유려한 필선이 특징인 경상도 지역 서풍(書風)의 맛을 감상할 수 있는데, 이는 글씨가 개인의 성품과 공간의 특색을 담아내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11개국의 해외 작가들의 작품도 소개되며, 우리 전통 한지를 재료로 활용한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해외 작가들의 유려하고 역동적인 필선과 필선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매력적인 전통 한지가 만나 서예의 역동성을 더욱더 가증시킨다.

'천인천각천자문'은 한국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서예가 1,000명이 참여한 작품으로,

천자문(千字文) 한 글자씩 틀에 새긴 뒤 화선지에 날인해 제작한 10폭 병풍이다. 작가가 1,000명의 예술성이 아름답게 융합된 '천인천각천자문'은 세계서예사의 유례없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을 위해 '천인천각천자문' 실인(實印) 1,000점도 함께 전시해 서예와 전각예술의 다양한 재미를 선사한다. 부산 순회전에서 선보이는 국내·외 서예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세계서예, 한국서예, 그리고 지역 서예의 맛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소장하고 있는 수준 높은 서예작품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전국 순회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부산전에 이어 서울전도 준비하고 있다.

서울 전시는 '철필의 미학'을 주제로 6월 1일부터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되며, 순창에서는 '서예, 숲을 만나다'를 주제로 4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전라북도 산림박물관에서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고창문화의전당 활성화로 지역 문화 선도한다

고창군,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우수공연 등 8개 공모사업 선정

고창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합회가 주관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등 8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4,000여만 원을 확보해 올해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국립·민간단체 우수공연

우리나라 합창음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선도하고 있는 (재)국립합창단의 〈흥겨운 합창여행〉, 매일매일 건박한 상황 속에서 의무를 다하는 소방관들의 진짜 삶을 다룬 연극 〈골든타임〉, 우리의 고유 악기와 병산 사자춤, 그림자극과 풍성한 볼거리로 꾸미는 국악 뮤지컬 〈빨강모자와 친구들〉을 선보인다.

또한 세련된 비트박스과 역동적인 비보잉, 풍성한 사운드와 화려한 시각적인 재미를 더한 연극 퍼포먼스 〈뮤지컬 세프〉, 전래동화 공주팔귀를 각색해 전통음악과 연극을 접목한 새로운 어린이 국악극 〈新 공주팔귀 황금뿔진〉 등이 선정되어 우수 공연서비스를 통해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고창문화의전당 전경.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기획제작 공연 가곡시리즈 기획공연 〈시의 가곡의 밤〉, 〈예술가곡의 밤〉에 이은 영국, 미국, 프랑스 등 가곡으로 떠나는 세계 음악여행, 〈세계 가곡의 밤〉 음악회는 연주자와 관객들이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로비음악회로 올 해도 "모든 공간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올해 처음 선정된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동리국악당, 연극과 음악을 읽다〉 프로그램은 지역의 관광명소 고창읍성 앞에 위치한 고창동리국악당과 야외광장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청소년과 가족 중심의 연극 2회, 음악회 2회 공연을 개최해 동리국악당의 이용 활성화를 새롭게 모색하고자 한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

7년째 선정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노는 토요일, 꿈꾸는 토요일〉은 지역의 청소년 예술 감상교육 확산을 통해 청소년의 자발적 문화예술 향유 능력을 높인다.

특히 고창 판소리와 국악의 특징을 살려 체계적인 문화예술 활동 기회 제공과 함께 훌륭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꿈을 키우는 문화예술 소양과 정서 함양을 높일 계획이다.

고창군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공연 레퍼토리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사업유치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군민을 위한 문화향수 제고와 세대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고창문화의전당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문화재단, '예술가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신)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광진)와 협력해 지역 예술인의 창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술가 창업지원 사업'에 함께할 예술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단은 2021년부터 지역 예술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투자유치, 유통채널 확보 등 창업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예술가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해 건강한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세워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첫 운영에서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주대학교 LINC+ 사업단과 협력해 총 여섯 개의 문화예술기반 창업 아이디어를 지원해, 지역에 안정적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재단에서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원과 선정과정을 간소화하고 인큐베이팅 과정을 강화해 내실 있는 예술기반의 극초기 창업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소정의 프로젝트 운영비를 지원해 예술가의 아이디어를 실현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 이후 전담 컨설턴트를 배치해 예술 창업 아이디어가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도록 끊임없는 컨설팅을 뒷받침한다.

한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극초기 창업자의 아이디어 발전단계에 맞추어 실제 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향후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금융 이해 교육부터 피칭 데모데이까지 단계별로 협력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신청서는 5월 4일까지 사업 공모문에 기재된 이메일을 통해 신청받는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휴카페·체력단련실 공간 재구성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는 18일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심신을 달래고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청사 내 직원들의 휴식 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활용하지 못했던 공간을 직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커피피티 등 음료가 구비된 휴

게실로 조성하고,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담실과 가벼운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꾸몄다.

또한, 체력단련실에 러닝머신, 헬스자전거, 벨트 맛사지 등 운동기구와 포켓볼대 설치 등으로 직원 체력증진 및 활력 충전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